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2, 261 - 279

## 사회불안 군집 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

신혜린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244명의 서울시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의 하위 군집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실제 현상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상황의 특성에 따라 사회불안을 구분해야 한다는 Leary와 Kowalsky(1995)의 주장과 발표불안을 독립적인 하위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Kessler, Stein, & Berglund(1998)의 의견을 보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발표불안'의 수준에 따라 군집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각 군집별로 심리적 안정감인 부정적 정서, 자아 존중감, 안정애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3개의 군집('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 군집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아 존중감은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군집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안정 애착은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과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에 비해 앞의 두 군집의 안정 애착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일반인들의 사회불안 하위 그룹의 구분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사회불안의 군집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개인의 독특한 차이를 고려할 수 있기에 사회불안을 겪는 이들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발표 불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 심리적 안정감, 군집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기학, (120-746)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02-2123-2445, E-mail: khlee2445@yonsei.ac.kr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등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대인 관계까지 피하게 된다면 개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된다(Davidson, Huges, Gerge, & Blazer, 1994; Schneier, Heckelman, Garfinkel, & Campeas, 1994). 더 나아가 이러한 불안은 개인의 학업 수행이나 직업기능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며(Davidson et al., 1994) 개인적 성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상호적 교류나 사회 수행을 포함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사회공포 혹은 사회불안이라고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사회불안자들은 사회적 수행 및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자기를 더 의식하고 자기를 비난하며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이 나거나 몸이 떨리는 등 신체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불안의 가장 심각한 결함은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들에는 시선을 맞추지 않고 피하는 행동처럼 약한 정도의 회피부터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따로 있는 것, 더 나아가 모든 대인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것 등이 있다. 사회불안은 주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APA, 1994), 사회불안이 발생하면 만성적으로 된다는 사실은(Amies, Gelder, & Shaw, 1983) 사회불안이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장애 중의 하나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일반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의 하나로서(Schneier, Jonson, Hornig, Liebowitz, & Weisman, 1992), 일반 성인의 15-20%가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며(Pilkonis, Feldman, Himmelhoch, & Cornes,

1980), 대학생의 경우 19-22%가 겪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Beidel, Turner, Stanley, & Dancu, 1989; Strahan, 2003).

이러한 사회불안은 정서, 자기 지각, 대인 관계에 걸쳐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 변인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면 사회불안과 부정적 정서와 높은 상관관을 보인다. 심리이론에서 정적-부정적 정서는 심리적 안정감의 독립적인 축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이러한 맥락으로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도 개발되었다(Peeters, Ponds, & Vermeeren, 1996; Watson, Clark, & Tellegen, 1988). 정적 정서요인에 비해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 NA)는 분노, 경멸, 메스꺼움, 죄의식 등 다양한 혐오적 정서 상태가 포함되는 차원으로서 우울과 불안 등을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Tellegen, 1985; Hall, 1977)인데, 불안을 유의미하게 잘 설명한다(Dyck, Jolly, & Kramer, 1994). 부정적 정서와 사회불안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불안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사회적 위협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동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Wenzel, Jackson, & Holt, 2002). 사회 불안자들이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서 종종 더 높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Vittengl & Holt, 1998).

그리고 자기 지각과 관련된 심리적 안정감을 나타내는 변인인 자아 존중감과 사회불안도 연관이 있다(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 Arndt, 2004). 자아 존중감은 심리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가치감 혹은 중요성에 대한 감각으로서(Blascovich & Tomak,

1991) 자기에 대한 호-불호의 태도라 할 수 있다 (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과 불안과의 관련성에 대해 TMT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에서는 높은 자아 존중감은 불안 혹은 불안과 관계된 모든 상황에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Pyszczynski et al., 2004).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경우는 불안과 공포가 완화되어 일상적인 삶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업무수행에 유능감을 보이는 반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피드백에 무척 민감하며 타인의 평가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자아 존중감은 특히 사회불안과도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는데, 예를 들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 횡단분석을 통해서 볼 때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고하고 있었다 (Bouvard et al., 1999; Ginsburg, La-Graca, & Silverman, 1988; Kocovski, & Endler, 2000; Izgiç et al., 2004).

또한 안정적인 애착은 대인관계 시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을 갖고 타인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변인으로(Sourfe, 1996)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애착이론은 양육자와 아동이 신체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하는 행동적, 정서적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Bowlby, 1969), Bowlby(1980)와 Bretherton(1985, 1987)등은 양육자와의 사이에서 형성된 기대와 경험 양상이 일생에 걸쳐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보

았다.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안정 애착과 높은 자아 탄력성, 낮은 불안감과 낮은 적개심, 원만한 대인관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Kobok & Sceery, 1988). 애착과 불안의 관련성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의 성인들이 안정 애착 성인들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느꼈으며(Arnold, 2001),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아동이 안정적 애착 유형의 아동보다 불안 증상이 높았으며(Muris, Bayer, & Meesters, 2000), 12개월의 불안정 애착 유아가 11세가 되었을 때 안정 애착 유아보다 학교에 대한 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Bar-Haim, Dan, Eshel, & Sagi-Schwartz, 2007) 등이 있다.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은 성인기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불안의 주요 특징인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Brennan & Shaver, 1995)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불안정 애착은 발표불안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자기 표현력 과도 부적 상관을 보인다(박은경, 1993; Armsden & Greenberg, 1987). 그리고 미국 국립 공존질환 조사(National Comorbidity Survey: 이하 NCS)의 인구학적 조사결과 사회적 불안과 성인애착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었다(Michelson, Kessler, & Shaver, 1997).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불안 연구에서도 살펴보면 애착유형에 따라 사회불안과 발표불안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안정적 애착인 경우 불안정 애착보다 사회불안의 여러 하위 유형에서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혜린, 이기학, 2008).

사회불안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 이하 DSM-III)에서 진단

되기 시작한 이후로 동일한 그룹이 아닌 다양한 그룹으로 간주되어져 왔다(Heimberg et al., 1993). 그리하여 사회불안은 여러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 이하 DSM-IV)에서는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으로 ‘사회적 상황 범위’에 따라 2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 하는 일반화된 유형(generalized subtype of social phobia)과 사회불안 상황이 특정 상황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특정 유형(non-generalized subtype of social phobia)으로 구분하고 있다(APA, 1994;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일반화된 유형과 특정유형 간의 정의가 모호하고 사회불안의 분명한 속성을 증명해 보이는 경험적 연구들이 부족하다는(Heimberg et al., 1999)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구분은 사회불안의 원인이나 증상에 대한 이해 및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Turner, Beidel, & Townsley, 1992). DSM-IV의 특별위원회(Task Force on DSM-IV, APA, 1991)에서는 또한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으로 세 개의 하위유형 모델을 고려했다. 즉, 공적인 수행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수행 유형(Performance Type),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두 가지 상황에 불안이 제한되는 제한적 상호작용 유형(Limited Interactional Type),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일반화된 유형(Generalized Type)으로

구분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모델을 재분석하기 위해 사회불안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을 때 수행 유형이 전체 표본의 6%밖에 안 되어 진단적 신뢰성이 떨어지고 수행 유형과 제한된 상호작용 유형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밝히지 못했다(Schneier et al., 1998).

사회불안 하위유형 구분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사회적 상황의 특성’에 따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사회불안 하위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황, 즉 양방향적이고 유관적인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겪는 상호작용 불안(interaction anxiety)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거나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상황, 즉 일방향적이고 비유관적인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겪는 수행불안(performance anxiety)이다(Leary & Kowalsky, 1995a; Leary & Kowalsky, 1995b). 이러한 사회적 상황 특성에 따른 구분의 이점은 사회불안의 상황을 양적 접근이 아닌 질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의 분류, 평가, 및 치료에 있어서 유용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불안의 구분은 사회불안의 사회적 상황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Cheek & Stahl, 1986)을 지닌다.

그러나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의 특성에 따른 구분 역시 또 다른 한계를 지닌다. 미국 국립 공존질환 조사(National Comorbidity Survey: 이하 NCS)의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구학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불안은 순수한 발표불안만을 갖고 있는 집단(35.8%)과 발표불안의 동반여부와 상관없이 한 개 이상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갖고 있는 집단(64.2%)으로 구분되었다

(Kessler, Stein, & Berglund, 1998).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발표불안’은 내용상으로는 수행불안에 속할 수 있으나 사회불안의 3분의 1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사회불안의 독자적인 하위 유형으로 구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erugi 등(2001)도 기존의 발표불안이 다른 수행상황과 구별되는 차원이며 대인관계 불안과도 구별되는 차원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Stein, Torgrud 및 Walker(2000)도 발표불안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하였다. 사회불안을 경험적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Safren 등(1999)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살펴보면, Liebowitz(1987)의 사회불안 척도 요인분석을 통해 네 가지 요인인 사회적 상호작용, 발표, 타인의 관찰, 공적인 자리에서 식사나 음주 행동을 규명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도 역시 발표불안이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의 한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인분석 연구의 한계는 자연발생적으로 구분되는 그룹을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ng, *et al*, 2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개념적 정의가 아닌 경험적 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불안의 진단의 어려움을 반영하듯이 일반군에서의 사회불안 하위유형 그룹의 분포 양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Furmark, Tillfors, Stattin, Ekselius, & Fredrikson, 2000).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첫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념적 구분이 아닌 실제 현상에서 보여지는 사회불안의 하위유

형의 프로파일을 기술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의 군집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발표불안’의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이는 DSM-IV에서 사용하는 사회 불안의 하위 유형 분류 방식이 진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으로 사회불안을 구분해야 한다는 Leary와 Kowalsky 견해와 발표 불안을 사회 불안의 독자적인 하위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Kessler의 견해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둘째, 사회불안의 군집들의 정서, 자기지각, 대인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의 군집 분류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군집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각 사회불안의 군집의 특성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로서 사회불안을 겪는 이들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독특한 차이를 고려하게 하여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방 법

###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두 대학교의 재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이 90명(36.9%), 여학생이 154명(63.1%)이었다. 연구 참가자들 전체 연령범위는 19~30세였으나, 97.3%의 학생들이 18~30세에 해당하고, 전체 연령평균은 22.17세(SD=2.06)로서 연령이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남학생의 연령범위는

18~29세, 연령평균은 22.07세(SD=2.35)였으며, 여학생의 연령범위는 19~30세, 연령평균 22.22(SD=1.88)이었다. 본 검사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 소요 시간은 약 20~25분이 소요되었다.

### 측정도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으로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ve Anxiety Scale: 이하 SIAS)를 사용하였다. SIAS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만큼 그렇다, 4: 상당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0)의 연구에서 번안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가 .91이었다.

**수행불안.**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겪는 주시불안, 혹은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행불안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사회 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 이하 SPS)를 사용하였다. SPS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1: 전혀 그

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만큼 그렇다, 4: 상당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이 척도도 김향숙(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도 .92로 나타났다.

**발표불안.** 발표불안 척도(Speech Anxiety Scale : 이하 SAS)는 Paul(1966)이 개발한 발표자로서의 자신감에 대한 자기 보고(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 PRCS)를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1999)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으로서 발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발표상황에서 보이는 인지적, 생리적 및 행동적 불안 반응들에 관해 묻는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 5점 척도이다(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발표불안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문항의 반은 역채점을 하도록 되어있다. 조용래 등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도 .94였다.

**자아 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전반적 자존감(global self-esteem)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 존중의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식 4점 척도로서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채점할 때 역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 존중감을 나타낸다(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확실히 그렇다). 이 척도는 내적 합치도 계수가 .79로 보고되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시간 간격을 두고 .82-.85의 계수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분석 결과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였다.

**부정적 정서.**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하였으며, 이유정(1994)이 번안한 것으로서 정적 정서 10문항, 부정적 정서 10문항,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과 상관이 높기에(이연희, 김은정, 이민규, 2003)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정서 상태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Likert 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분노, 경멸, 죄의식 등 불쾌한 정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1: 아주 약간 또는 전혀 아님, 2: 약간, 3: 어느정도, 4: 꽤, 5: 매우 많이). 전체 척도 중 부정적 정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분석 결과 내적 합치도 계수는 .84였다.

**안정 애착.**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994년 Griffin과 Bartholomew(1994)가 제작한 3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관계유형 질문지(Relationship Style Questionnaire : RSQ)를 사용

하였다. RSQ는 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의 네 가지 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안정 애착 유형만을 사용하였다. 안정애착 유형과 관련된 문항은 5문항이었다. 안정 애착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 애착 유형과 더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4: 상당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도구개발 당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다.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안정형은 .60이었다.

##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에 의해 분석되었다. 우선 발표불안과 사회불안(수행불안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이 조합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방법은 Wards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의 수와 각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결정하였고, 비위계적 군집방법은 K-means 방법으로 초기 시작점을 중심점으로 각 사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하였다. 이후 발표불안, 수행불안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따라 구성된 하위집단들이 심리적 안정감 척도들인 부정적 정서, 자아존중감, 안정애착유형 평균 점수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군집분석

결과의 각 군집이었고, 종속변인은 부정적 정서, 자아존중감, 안정에착유형으로 이루어져있다.

### 결 과

#### 사회불안 하위 유형들에 따른 군집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 그리고 발표불안을 군집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Wards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3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이 후, 각 군집에 해당하는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차적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참여자들을 해당 군집에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군집 1은 88명(전체의 36.1%, 남학생 35명, 여학생 53명), 군집 2는 56명(전체23.0%, 남학생 24명, 여학생 32명), 군집3은 100명(전체의 41.0%, 남학생 31명, 여학생 69명)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각 군집 내의 분포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2, 244)=2.66, p > .05$ ].

각 군집변인의 상대적인 점수를 절대적으로 비교하여 점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1에 군집 변인들의 점수를 평균점수 0, 표준편차 1과 같이 표준점수(z)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세 군집간의 발표 불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 각 척도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본 후 각 군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름을 정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분산검증 결과 영가설이 기각되어 동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다(Box's M= 56.44,  $p < .05$ ). 그리하여 이 후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는데 Pillai's Trace가 사용되었다. 군집에 따라 다변량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유의도 .001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Pillai's Trace = 1.02,  $F_{2,241} = 82.64, p < .001, \eta^2 = .51$ ). 이는 종속 변수 각각에 대한 변량분석(ANOVA)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에 따라 발표 불안( $F_{2,241} = 94.90, p < .001, \eta^2 = .44$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F_{2,241} = 178.80, p < .001, \eta^2 = .60$ ), 수행불안( $F_{2,241} = 232.15, p < .001, \eta^2 = .66$ )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있

표 1. 군집에 따른 사회불안 하위유형에 대한 변량분석

	평균(표준편차)			F	$\eta^2$	Sheffé 사후검증
	군집 1 (n=88)	군집 2 (n=56)	군집 3 (n=100)			
발표 불안	-.87(.65)	.65(.96)	.40(.70)	94.90***	.44	1<2,3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84(.54)	1.22(.75)	.04(.65)	178.80***	.60	1<3<2
수행불안	-.66(.55)	1.44(.75)	-.23(.51)	232.15***	.66	1<3<2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모두 Z점수화 한 후 표기됨

\*\*\*  $p < .001$



어서는 군집 2, 군집 3, 군집 1 순서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으며 발표불안에 있어서는 군집 1에 비해 군집 2와 군집 3이 높은 불안수준을 보였다. 이 때, 군집 2와 군집 3간의 차이는 나지 않았다. 종속변수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세 군집간의 발표 불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의 점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군집의 이름을 정하였다. Sheffé의 사후 검증 결과 군집 1은 사회불안의 세 하위 유형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군집 2는 사회불안의 세 하위 유형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런데 군집 3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서는 군집 1과 군집 3에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점수 양상을 보였으며, 발표불안에 있어서는 군집 1보다 높고, 군집 2와는 비슷한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따라서 군집 1은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 군집 2는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군집 3은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 수준의 사회불안’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군집에

따른 사회불안 하위 유형의 점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사회불안에 따른 하위집단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

발표불안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에 따라 구성된 하위집단들 사이에 심리적 안정감 지표들의 평균 점수 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 때, 세 개의 군집이 독립변인이었으며 종속변인은 부정적 정서, 자아 존중감, 안정에착이었다. 먼저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분산 검증결과, 영가설이 수용되어 동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었다(Box’s M = 18.79,  $p > .05$ ).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의 관측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ces)이 동일함을 시사한다(Mertler & Vannatta, 2005). 이 후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였는데 독립변인(군집)에 따라 다변량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한 결과 유의도 .001수준에서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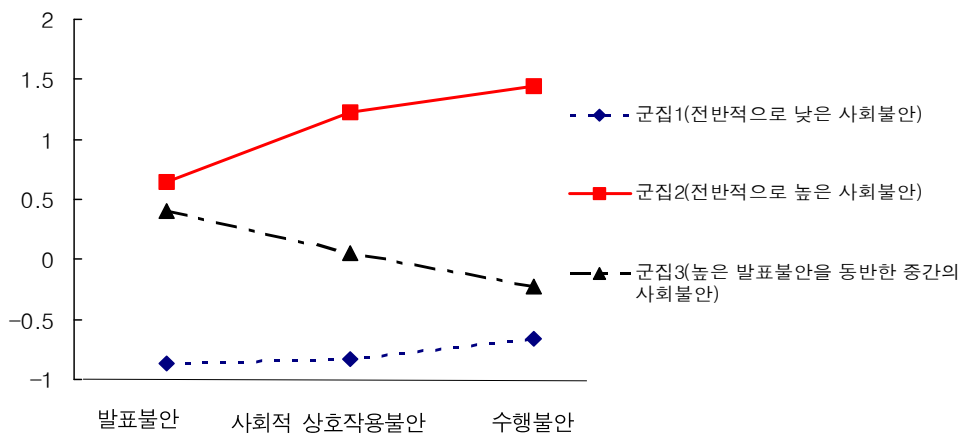


그림 1. 각 군집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

미가 있었다(Wilks'  $\lambda = .70$ ,  $F_{2,241} = 15.45$ ,  $p < .001$ ,  $\eta^2 = .16$ ). 이는 종속 변수 각각에 대한 변량분석(ANOVA)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종속변인 각각에 대한 ANOVA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군집)은 세 개의 종속 변수 모두에서 유의도 수준 .001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군집에 따라 부정적 정서( $F_{2,241}=26.18$ ,  $\eta^2 = .18$ ,  $p < .001$ ), 자아 존중감( $F_{2,241}=29.33$ ,  $\eta^2 = .20$ ,  $p < .001$ ), 안정예착( $F_{2,241}=13.52$ ,  $\eta^2 = .10$ ,  $p < .001$ ) 모두에서 집단 간

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각 군집의 종속변수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후, 독립변인 군집이 두 개 이상의 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군집의 평균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S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 변인에 있어서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군집 2가 군집 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군집 3이 군집1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아존중감 변인에 있어서는 유의도

표 2. 군집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변량분석

	평균(표준편차)			F	$\eta^2$	Sheffé 사후검증
	군집 1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 (n=88)	군집 2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n=56)	군집 3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 (n=100)			
부정적 정서	-.42(.86)	.70(.89)	-.03(.96)	26.18***	.18	1<3<2
자아 존중감	.50(.82)	-.68(1.08)	-.06(.86)	29.33***	.20	1>3>2
안정 예착	.42(1.09)	-.31(.87)	-.19(.86)	13.52***	.10	1>2,3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모두 Z점수화 한 후 표기됨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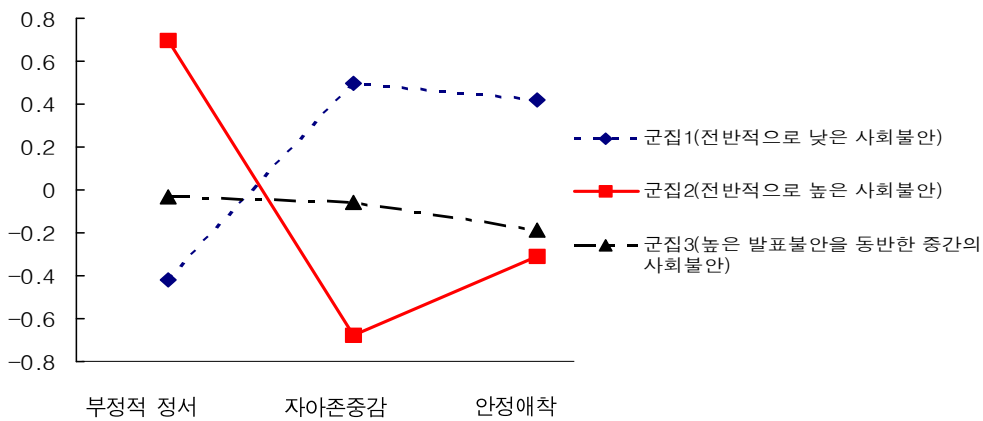


그림 2. 군집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

.001 수준에서 군집 1이 군집 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군집 3이 군집 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안정애착 수준에 있어서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군집 1이 군집 2와 군집 3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각 군집별 종속변인 점수 차이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종속변인의 표준화 점수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 대학생 집단에서 어떤 분포양상을 보이는지 그 군집의 프로파일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의 실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군집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각 사회불안 군집의 특성을 알고 각 군집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치료 시 각 군집에 알맞은 차별화된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불안을 겪는 이들의 심리적 복지 향상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현상에서 자연적으로 보여지고 구분되는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의 프로파일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들인 발표불안,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의 변인으로 군집 분석을 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 군집유형이 세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후 세 변인에 대한 각 군집의 차이검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있어서는 군집 2, 군집 3, 군집 1 순서로 높은 불안수준

을 보였으며, 발표불안에 있어서는 군집 1에 비해 군집 2와 군집 3이 높은 불안수준을 보였다. 군집 2와 군집 3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군집의 각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불안의 상대적 점수 차이 정도에 따라 군집 1은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 군집 2는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군집 3은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으로 명명되었다. 군집명과 같이 첫 번째 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사회불안 유형에서 낮은 수준의 불안을 보인 집단이었고, 두 번째 군집은 모든 사회불안 유형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인 집단이었으며, 세 번째 군집은 발표불안에서만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고 나머지 변인에서는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발표불안이 모두 낮거나 모두 높은 집단으로만 구분되지 않았으며, 모두 독립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과는 달리, 발표불안은 사회적 불안의 다른 하위 유형과는 독립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상황의 특성에 따라 수행불안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사회불안을 구분하고 있는 Leary와 Kowalsky의 분류방식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반면, 사회불안을 구분하는 데 있어 엄밀히 말하면 수행불안과 상호작용불안의 질적인 구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단지 양적인 구분만 있을 뿐이라는 Rapee(1995)의 주장이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내용을 지닌다. 또한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이 질적 차이가 없이 양적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Furnak과 그의 동료들(1999)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적으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도 수행불

안과 상호작용불안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2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실패하였으며(Safren *et al.*, 1998, 1999), 스위스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불안 군집분석 연구에서도 군집에 따라 수행불안과 상호작용불안이 동반상승하는 프로파일을 보였다(Furmark, *et al.*, 2000). 국내 연구에서도 살펴보면, 박선영(2003)의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의 상관이 .72로 매우 높았으며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이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에서의 상관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단순 발표불안과 복합적인 사회불안으로 나누고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으로 단독 발표불안을 구별하는 Kessler 등(1998)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즉, 본 연구 결과의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군집은 Kessler의 구분에서 복합적인 사회불안으로,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 군집은 단독 발표불안으로 볼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높은 발표불안을 가진 군집에서도 다른 군집에 비해 중간 정도의 사회불안을 보였다.

둘째, 본 연구의 군집분석 결과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의 군집 3은 100명으로 전체 41%를 차지하면서 독자적인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군에서 발표불안을 느끼는 분포가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을 해석하는 데에는 연구 대상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인들 중 학력이 높은 대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및 대학생의 학력자들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들보다 발표불안이 높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essler, *et al.*, 1998).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 중 순수한 발표불안만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사회불안의 독자적인 하위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Kessler, Stein, & Berglund, 1998)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유형 군집을 분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변인인 부정적 정서, 자아 존중감, 안정 애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이검증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대해 각 군집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의 군집 유형 분류 방법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더불어 각 군집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차이검증 결과,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사회불안 유형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군집, 발표불안에서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서는 다른 군집에 비해 중간 정도 불안수준을 보인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 군집, 전체적으로 낮은 사회불안을 보이는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 군집 순서로 부정적 정서가 높았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안정 애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 군집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군집 및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 군집보다 안정 애착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모든 유형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사회불안 군집과 발표불안에서만 높은 수준을 보인 군집에서 안정 애착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각 군집에 있어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군집 1, 2, 3이 확연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단독으로 발표불안만 보이는 집단의

유병률(10.8%)이 발표불안이 있건 없건 한 가지 이상의 상호작용 불안을 보이는 집단(20.9%)에 비해 전생애 유병률이 낮고, 단독으로 발표불안만 보이는 집단과 다른 장애와의 공존률(예, 우울; 26.9%, 다른 불안 장애; 37%, 중독관련 장애; 34.3%)이 한 가지 이상의 상호작용 불안을 보이는 집단과 다른 장애와의 공존률(예, 우울; 46.7%, 다른 불안 장애; 60.8%, 중독관련 장애; 40.6%)에 비해 낮다는 집단의 차이에 대한 결과(Heimberg *et al.*, 2000)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한편 안정 애착에 있어서는 군집 2와 군집 3이 같은 수준으로 보이고 군집 1과만 차이를 보인 결과는 안정 애착이 부정적 정서나 자아 존중감 변인보다 사회불안의 여러 영역과 관련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발표불안이 안정 애착과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는 불안정 애착은 발표불안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자기표현력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박은경, 1993; Armsden & Greenberg, 1987)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며, 성인애착 중 안정 애착에 비해 불안정 애착에 있어서 사회불안의 여러 영역의 불안 수준이 높기 나타난다고 보고된 성인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신혜린, 이기학, 2008)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들은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와 상담 실제에 있어서 몇 가지 함의를 지닌다. 우선,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상황의 특성에 따라 수행불안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법의 가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행불안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은 동반상승 및 동반하강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행불안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질적 차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을 기초로 군집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Kessler가 주장한 발표불안이 다른 사회불안과는 동질적이지 않은 그룹인가에 대한 기존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표불안이 높으면서 중간정도의 사회불안을 보이는 집단과 발표불안도 높으면서 다른 사회불안도 높은 전반적인 사회불안이 다른 집단으로 다른 군집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 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집단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표불안만 높고 다른 사회불안은 높지 않은 집단은 다른 사회불안과는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불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연구 대상을 주로 발표불안자들을 사회불안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발표불안과 다른 사회불안 유형이 혼재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때에 발표불안만 겪는 사람들과 발표불안 외의 다른 사회불안도 동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연구를 진행하여 혼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발표불안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대상이 발표불안만 상승한 중간정도의 사회불안을 보이는 발표불안자인지, 전반적인 사회불안을 겪고 있는 발표불안자인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담 실제 영역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의 특성에 따라 다른 심리적 특성을 지니므로 그 집단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

한 중간정도의 사회불안 군집과 전반적인 사회불안을 느끼는 군집의 내담자들이 발표불안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두려움 노출 치료에서 그 강도를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즉,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발표불안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발표불안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 동질집단 선정을 위한 내담자 스크리닝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간정도의 단독으로 발표불안을 느끼는 내담자들과 발표불안 외의 다른 전반적인 사회불안을 동반한 내담자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른 집단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재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의 군집 유형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군집분석은 상대적 점수를 비교하여 연구대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에서 명명된 군집,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불안’, ‘높은 발표불안을 동반한 중간의 사회불안’에서 제시된 사회불안의 높고 낮다라는 의미는 대학생들의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임상적 진단 기준에서의 사회불안 수준이 높고 낮은 것과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원점수의 의미 분석과 더불어 사회불안 임상군 및 다양한 연령대 및 학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면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불안 군집분석을 할 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발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수행불안과 발표불안 척도의 내용이 다소 중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 구분의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것과 연관이 된다. 즉, 발표불안이 독단적인 사회불안일 수 있다는 의견이 최근에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 의견에 근거한 사회불안의 하위 척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Blöte 등(2009) 발표불안과 다른 사회불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발표불안과 다른 사회불안의 차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 타당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발표불안이 독자적인 사회불안일 수 있다는 이론 하에 개발된 척도를 재사용하여 다시 군집분석을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심리적 안정감인 부정적 정서, 자아존중감, 안정 애착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검증을 통해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중 대인관계의 안정감을 살펴보기 위해 안정 애착의 안정형 하위척도를 사용하였으나 그 문항수가 적은 관계로 내적 합치도 다소 낮았다. 따라서 좀 더 신뢰로운 척도를 사용하여 안정 애착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심리적 변인 외에 실제 생활의 기능의 차이, 발표에 대한 주관적 어려움, 인지 특성, 대처양식 차이 등 좀 더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여 각 군집간의 독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각 군집의 차이에 대하여 질적 연구로서 그 개인적 특성 차이를 밝힌다면 각 군집에 대한 심리적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풍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향숙 (2000).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경 (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린, 이기학 (2008).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 사회불안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일반*, 27(1), 139-159.
- 이연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22(4), 935-946.
- 이유정 (1994). 성격특질이 기분의 수준 및 변화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병제 (1974). 자아 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30.
-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 (1999). 한국판 발표불안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65-17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ies, P. L., Gelder, M. G., & Shaw, P. M. (1983). Social phobia: A comparative clin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2, 174-17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nold, M. (2001). *The decision to work with the older adult: Attachment,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old people*.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Bar-Haim Y., Dan O., Eshel Y., Sagi-Schwartz A. (2007). Predicting children's anxiety from early attachment relationship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 1061-1068.
- Beidel, D., Turner, S., Stanley, M., & Dancu, C. (1989).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concurrent and external validity. *Behavior Therapy*, 20, 417-427.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P. Robinson, P. R. Shaver, & Wrightsman, L. S.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ume I*.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löte, A., Kint, M., Miers, A., & Westenberg, M. (2009).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peaking anxiety and social anxiety: A review.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 305-313.
- Bouvard, M., Guerin, J., Roin, A. C., Bouchard, C., Ducottet, E., Sechaud, M., Mollard, E., Grillet, P., & Cottraus, J. (1999). Psychometric study of the social self-esteem inventory of Lawson et al. (1979).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49, 165-17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London: Hogarth Pres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 3-35.
- Bretherton, I. (1987).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relations: 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J.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1061-1100), New York: Wiley.
- Cheek, J. M., & Stahl, S. S. (1986). Shyness and verbal creativity., *J. M., & Research in Personality, 20*, 51-61.
- Davidons, J. R. T., Hughes, D. C., George, L. K., & Blazer, D. G. (1994). The boundary of social phobia: Exploring the threshol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975-983.
- Dyck, M. J., Jolly, J. B., & Krammer, T. (1994). An evaluation of positive affectivity, negative affectivity, and hyperarousal as markers for assessing between syndrome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637-646.
- Eng, E., Heimberg, R. G., Coles, M. E., Schneier, F. R., & Liebowitz, M. R. (2000). An empirical approach to subtype identification in individuals with social phobia. *Psychological Medicine, 30*, 1345-1357.
- Furmark, T., Tillfors, M., Everz, P.O., Marteinsdottir, I., Gefvert, O., & Fredrikson, M. (1999). Social phobia in the general population: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profil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4*, 416-424.
- Furmaark, T., Tillfors, M., Stattin, H., Ekselius, L., & Fredrikson, M. (2000). Social phobia subtypes in the general population revealed by cluster analysis. *Psychological Medicine, 30*, 1335-1344.
- Ginsburg, G. S., La-Greca, A. M., & Silverman, W. K. (1998). Social anxiety in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relation with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175-185.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45.
- Hall, C. A. (1977). *Differential relationships of pleasure and distres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over a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w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Heimberg, R. G., Hope, D. A., Dodge, C. S., & Becker, R. E. (1990). DSM-III-R subtypes of social phobia: comparison of generalized social phobics and public speaking phobic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 172-179.
- Heimberg, R. G., Holt, C. S., Schneier, F. R., Spitzer, R. L., & Liebowitz, M. R. (1993). The issue of subtypes in the diagnosi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 249-269.
- Heimberg R. G., Horner J. K., Juster H. R., Safren S. A., Brown E. J., Schneier F. R., Liebowitz M. R. (199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Psychol Med 29(1)*, 99 - 212.
- Heimberg, R. G., Stein, M. B., Hiripi, E., & Kessler, R. C. (2000). Trends in the prevalence of social phobia in the United States: a synthetic cohort analysis of changes over four decades. *European Psychiatry, 15*, 29-37.
- Izgiç, F., Akyüz, G., Dog'an, O., & Kug'u, N. (2004). Social phobia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its relation to self-esteem and body image. *Canadian Journal Psychiatry, 49*, 630-634.
- Kessler, R. C., Stein, M. B., & Berglund, P. (1998). Social phobia subtype in the National Colorability Survey. *American Journal of*



- Psychiatry*, 155, 613-619.
- Kobak, R. R.,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covski, N. L., & Endler, N. S. (2000). Social anxiety, self-regul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347-358.
- Leary, M. R., Kowalsky, R. M. (1995a).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 Leary, M. R., Kowalsky, R. M. (1995b).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in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social phobia and scrutin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ertler, C. A., & Vannatta, R. A. (2005).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3rd ed.). Glendale, CA: Pyrczak Publishing.
- Mich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 - 1106.
- Muris, P., Mayer, B., Meesters C. (2000).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8(2), 157-162.
- Paul, G.L. (1966). *Insight versu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eters F., Ponds R., Vermeeren M. (1996). Affectivity and self-report of depression and anxiety. *Tijdschr Psych* 38(3), 240-250.
- Perugi, G., Nassini, S., Marenmani, I., Madaro, D., Toni, C, Simonini, E., & Akiskal, H. S. (2001). Putative clinical subtypes of social phobia: a factor-analytical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4, 280-188.
- Pilkonis, D. A., Feldman, M., Himmelhoch, J., & Cornes, C. (1980). Social anxiety and psychiatric diagnosi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13-18.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 Rapee, R. M. (1995). Descriptive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In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ed.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and F. R. Schneier), pp. 41-46. Guilford Press: New York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fren, S. A., Turk, C. L. & Heimberg, R. G. (1998). Factor structure of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43-453.
- Safren, S. A., Heimberg, R. G., Horner, K. J., Juster, H. R., Schneier, F. R., & Liebowitz, M. R. (1999). Factor structure of social fears: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3, 253-270.
- Schneier, F. R., Heckelman, L. R., Garfinkel, R., &

- Campeas, R. (1994). Functional impairment in social phobi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5*, 322-331.
- Schneier, F. R., Jonson, J., Hornig, C. D., Liebowitz, M. R., & Wei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epidemiological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282-288.
- Schneier, F. R., Liebowitz, M. R., Beidel, D. C., Garfinkel, R., Heimberg, R. G., Juster, H., Mannuzza, S., Oberlander, B. E., Turner, S. M., Law, K., Mattia, J., & Orsillo, S. (1998). MacArthur Data Reanalysis for DSM-IV: Social Phobia. In Widiger T. A., Frances, A. H., Pincus, H. A., First, M. J., Ross, R., & Davis W. (Ed.), *DSM-IV Source book, Volume 4* (pp. 307-328). American Psychiatric Press: Washington, D. C.
-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in, M. B., Torgrud, L. J., Walker, J. R. (2000) Social phobia symptoms, subtypes, and severity: Findings from a commun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 1046-1052.
- Strahan, E. Y. (2003).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skills on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347-366.
- Task Force on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1). *DSM-IV Options Book: Work in Progress 9/1/91*. APA: Washington, DC.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ter (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326-331.
- Vittengl J. R., Holt, C. S. (199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in social interactions as a function of partner familiarity, quality of communicat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2), 196-208.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enzel, A., Jackson, L. C., Holt, C. S. (2002) Social phobia and the recall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Depression and Anxiety*, *15*(4), 186-189.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rev10*.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원고접수일: 2009년 1월 1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3월 17일

게재결정일: 2010년 4월 2일

# Psychological Stability Differences in Social Anxiety Subtypes

Hae-lin Shin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used cluster analysis procedures to identify natural subgroups of 244 Korean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their levels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performance anxiety', and 'presentation anxiety'.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groups were explored on the basis of the students' scores on psychological stability (negative affect, self-esteem, and stable attachment). The results revealed that three subgroups were identified. These groups were labelled: (1) low level social anxiety (2) pervasive social anxiety (3) middle level social anxiety with high presentation anxiety. Additionally, results from a MANOVA analysis revealed that each clust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on negative affect( $\eta^2=.18$ ), self-esteem( $\eta^2=.20$ ), and stable attachment( $\eta^2=.10$ ). This results showed that the three subgroup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in exploring social anxiety, individual differences on the levels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performance anxiety', and 'presentation anxiety' should be fully considered. The current study offers usefu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who work with the clients with social anxiety in terms of research and practice.

*Keywords: Social Interactive Anxiety, Performance Anxiety, Presentation Anxiety, Psychological Stability, classification*